

산업은행 “제3자 지정권 허용 않겠다” 금호타이어 인수 입지 좁아진 박삼구 회장

채권단 다음달 매각 공고 예정

박 회장, 투자자 유치 어려워져

금호타이어 매각을 위한 실사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가진 금호타이어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데 대해 불가 결론을 내려 주목된다. 이는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진 박삼구 회장이 이를 양도하거나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금호타이어를 다시 사들이고자 하는 박삼구 회장의 입지도 줄어들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매각을 준비 중인 KDB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 채권단은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이 보유한 금호타이어에 대한 우선매수권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박삼구 회장이 우선매수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을 물론 계열사를 동원한 자금 조달도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박삼구 회장이 보유한 우선매수권의 범위를 박 회장 개인에 한정할지 혹은 박 회장이 보유한 SP(특수목적법인)까지 인정할지 여부를 두고 시장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왔다.

박삼구 회장의 금호타이어 우선매수권에는 ‘채권단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최근 채권단이 제3자 양도를 공식 확인하면서 박삼구 회장은 자금조달을 위해 제3의 기업을 세운 뒤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어렵게 됐다. 2010년 약정 체결 당시 우선매수권은 박삼구 회장과 박세창 사장에게만 부여됐다. 이에 따라 박삼구 회장의 자금 조달 진행 과정에 따라 매각의 흥행 또한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단은 이 같은 원칙에 따라 금호타이어 경쟁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때 최고가격이 정해지면 이를 먼저 박삼구 회장 부자에게 제시하고 인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후 박 회장 부자가 채권단이 제시한 최고 가격을 받아들이면 경쟁입찰 결과와 상관없이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지난해 금호산업을 인수하면서 3500억원을 빌린 박삼구 회장으로서 순수 개인 자금으로 인수대금을 조달해야 해 적잖은 부담을 지게 됐다는 분석이다. 앞서 박삼구 회장은 금호산업을 인수할 때 ‘제3자 지정 권한’을 활용해 금호기업이라는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 금호산업 지분을 담보로 인수자금 일부를 차입하는 구조를 만들어 금호산업을 인수했다.

한편, 산업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하는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이르면 다음달 중 매각 공고를 내고 매각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지난 1월 크레디트스위스(CS)를 주관사로 선정해 지난 매각 절차를 밟고 있으며 현재 매각대상 조사를 진행 중이다. 금호타이어 국내의 법인에 대한 실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매각 지분은 우리은행 14.15%, 산업은행 13.51%, 국민은행 4.16%, 수출입은행 3.12% 등 총 41.14%.

현재 금호타이어는 중국과 미국, 베트남 등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 경쟁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가격도 1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통계청, 전국 ‘경제총조사’

내일부터 광주·전남 29만7648여 사업체 대상

호남지방통계청(청장 백만기)은 오는 7일부터 전국적으로 2016 경제총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2016 경제총조사는 국내 전체산업의 규모와 구조를 통일된 기준으로 파악하기 위해 5년(필자리가 1 또는 6으로 끝나는 연도에 실시) 간격으로 실시되는 전수조사다.

조사기간은 오는 7월22일까지이며 호남지방통계청 직원 70명과 지자체 공무원 147명, 조사원 850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조사원이 직접 사업체를 방문, 조사표를 작성하는 면접조사와 인터넷 이메일 접조사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조사는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산업구조 통계 제공을 위해 국제통계기반·행정기관 등 8개기관과 협업을 통해 법인세 등 200여종의 행정자료를 연

계, 사업체의 응답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 사업자등록 자료 등을 활용해 사업체명부 중복·누락 등을 보완할 방침이다.

자료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입력방식을 웹 입력으로 전환했으며 오류를 줄이기 위해 3단계를 걸쳐 자료가 처리된다.

이번 조사 대상이 되는 광주·전남 사업체수는 29만7648개이며 총사업자는 119만4004명이다. 조사구수는 총 5210곳이다. 조사결과를 올해 12월에 잠정결과가 발표되며 확정결과는 내년 4~6월경에 정리될 예정이다.

백만기 호남지방통계청장은 “경제총조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어 품질 높은 조사 결과를 통해 광주·전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도민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광주본부세관은 최근 북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11층 대회의실에서 산업현장의 견수령을 위한 현장 규제개혁 간담회를 가졌다. <광주본부세관 제공>

광주본부세관, 현장 규제개혁 간담회 개최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지난 3일 서정일 세관장주재로 수출입기업,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산업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현장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이날 규제개혁 추진성과와 우수 현장사례를 알리고,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 재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보세공장 운영의 효율화 방안 등 각종 규제에 대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우수 과제에 대해서는 ‘관세행정 국민제안 공모전’에 제출 예정이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광주본부세관은 관세행정 수요자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 현장중심의 과제 및 경

제적 파급력이 큰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집중하고, 관세행정 외부고객과의 의견수렴의 장을 확대하는 등 행정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주택담보대출 5월 3조5000억원 증가 “국산 SUV 바람 거세다”

월별 증가액 최대치 기록

집단대출 증가세 주도

지난달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비수도권까지 확대 적용됐지만 국내 주요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6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달에 3조5000억원이 늘어 올해 들어 월별 증가액으로는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집단대출이 5월 대출 증가액의 절반을 차지했다.

5일 각 은행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기협 등 6대 은행의 5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60조1377억원으로, 전월인 4월(356조5956억원)에 견줘 3조5421억원이 늘었다. 이는 올해 증가액으로는 최대 규모다. 5월 이전 6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3조2067억원이 증가한 4월에 가장 많이 늘었고, 3월 2조1628억원, 1월 1조3308억원, 2월 8460억원 순으로 증가했다.

지난 2월 수도권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영향으로 2~3월 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인 듯 보였으나 4월부터 다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차 철을 맞아 주택 거래가 급증한 영향이 크다.

특히 지난 4~5월 거래 건수는 1만8903건으로, 1~3월 석 달 치 거래 건수(1만7417건)를 웃돌았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지 않는 집단대출의 폭발적인 증가세도 주택담보대출 급증에 걸인차 구실을 했다. 집단대출이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차주(대출자) 개인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 없이 중도금과 이주비, 잔금 등을 빌려주는 은행 대출상품을 말한다.

6대 은행의 집단대출은 5월에만 1조800016억원이 증가해 5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의 50.8%를 차지했다.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에서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9.4%(106조290억원)인 것에 견줘보면 집단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진 셈이다.

4월에 이어 5월에도 5만호 안팎의 아파트가 분양되는 등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분양열기가 이어지면서 집단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난해 분양된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도 집단대출 증가에 한 몫하고 있다. 통상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전체 매매대금의 60~70%를 2년여에 걸쳐 중도금으로 분할 납부한다.

집단대출은 지난 2월 이후 6대 은행에서만 7조원 이상 급증하며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5월 전년비 56% 증가...1만216대 판매

국산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전성시대가 활짝 열렸다.

5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산 소형 SUV는 지난 5월 한 달간 국내에서 전년 동기 대비 56.1% 증가한 1만216대가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세운 역대 월간 최대 판매 기록인 1만44대를 뛰어넘은 것이다.

국산 소형 SUV 시장은 한국GM의 트랙스가 처음 판매되기 시작한 2013년 2월 이후 2014년 르노삼성 QM3, 2015년 쌍용차 티볼리, 2016년 기아차 니로가 차례로 가세하며 해마다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13년 9215대에 불과했

던 소형 SUV 판매는 2014년 2만8000559대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티볼리 돌풍에 힘입어 8만2308대까지 급증했다.

소형 SUV는 올해 들어서도 5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34.1% 늘어난 3만6506대가 팔렸다.

소형 SUV의 판매 확대는 최근 레저문화 붐 속에 실용성과 경제성을 중시하는 젊은층과 여성층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소형 SUV 시장은 지난달 5490대 판매로 1위를 유지한 티볼리가 수성 중인 가운데 지난 4월 기아차 니로가 출시되면서 더 뜨겁게 달아오르는 양상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전KPS, 680억원 규모 인도 화력발전소 사업 수주

한전KPS가 680억원에 육박하는 인도 화력발전소 정비 사업을 수주했다.

한전KPS는 5일 “인도 잘수구다 화력발전소 신규 사업에 대한 수주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 찬드리아 화력발전소 운전과 정비(O&M) 사업을 연장했다. 두 화력발전소 수주 규모는 총 678억 원이다.

인도 잘수구다 화력발전소(총 9개호기)는 한전KPS가 2008년부터 8년간 정비 사업을 진행한 사업장이다.

한전KPS는 기존계약이 만료돼 554억 원 규모의 신규계약을 맺어 2021년 1월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또 2004년부터 12년 동안 인도 찬드리아 화력발전소(총 3개호기)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에 기존 계약이 완료되지만 지난 4월 변경 계약(124억원 규모)을 통해 2020년까지 사업을 연장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1 6 17 22 28 45	23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3,987,206,532	4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54,247,708	49
3 5개 숫자일치	1,472,653	1,805
4 4개 숫자일치	50,000	87,931
5 3개 숫자일치	5,000	1,453,654

전북의 랜드마크호텔 **특별분양!!**

전주 한옥마을 라마다 @ncore 호텔

RAMADA JEONJU @ncore

10년 수익보장

실투자 6천만원 **월수익 100만원**

계약서 발행 2분만에 완판신화!!

1899-8735 **NAVER 라마다 전주** 검색

2017년 명품의 가치가 증명됩니다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고품질 결혼정보회사

빠른 성사! 결혼성사사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SKY in Seoul

초혼	추천회원	재혼
남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8~45세 시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공무원(5급~9급) 27~42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삼성, 현대, LG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여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아나운서,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타우디사,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남 의사, 변호사 32~72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2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4세 대기업 간부 36~67세 회사원, 자영업 33~61세 무출산 여성 희망 33~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이엔드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